제9차 OECD통계위원회 및
제2차 한-네덜란드 양자협력회의 참가 결과 보고

2012. 6.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통계청
STATISTICS KOREA

제9차 OECD통계위원회 참가 보고

Ⅰ 제9차 OECD 통계위원회

1. 개 요

(1) **회의명** : 제9차 OECD 통계위원회 회의
(9th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2) **참가목적**

○ 선진 국제 통계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 논의 및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가 통계청장.국제기구 수장들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청장님의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CSTAT Bureau) 부의장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 및 참여를 통한 우리청 위상 제고

(3) **회의장소 및 회의기간**

○ 회의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re

○ 회의기간 : '12. 6. 4(월) ~ 6. 5(화)

(4) **대표단**

○ 단장: 우기종 통계청장

○ 단원: 경제통계기획과 최성욱 과장,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인숙과장, 서경숙 사무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이인규 부국장

※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제60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 주OECD대표부 : 김석원 주재관

2. 회의의제 및 프로그램

날짜	시간		의 제	문서번호
6.4. (월)	09:30–10:30	1	▪ 환영인사 및 의장 소개 ▪ OECD 통계국장 구두보고	STD/CSTAT/A 1 STD/CSTAT/M 1
	10:30–11:30	2	▪ 2013~2014년 CSTAT 사업프로그램 및 예산	STD/CSTAT 1
	Coffee Break			
	12:00–12:45	3	▪BIG DATA 시사점	STD/CSTAT 2
	Lunch Break			
	14:45–15:45	4	▪국제성인역량 측정 프로젝트(PIAAC)	STD/CSTAT 8
	15:45–16:30	5	▪도시의 재정의 : OECD 국가의 Metropolitan Areas 측정 신규 방법	STD/CSTAT 3
	Coffee Break			
	17:00–18:00	6	▪ 국민계정 및 금융통계 작업반 경과 보고	STD/CSTAT 4
6.5. (화)	09:30–10:00	7	▪OECD 개발전략	C/MIN 6
	10:00–11:15	8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STD/CSTAT 5 STD/CSTAT 6 STD/CSTAT/RD 1
	Coffee Break			
	11:45–12:15	9	▪ 기업가활동 지표	STD/CSTAT 7
	12:15–13:00	10	▪기타사항 INFORMATION ITEMS – 전문가 그룹 보고 – 주관적 웰빙 가이드라인 – 사회자본측정 검토 – SDMX – 사업이행보고	STD/CSTAT/RD 2 STD/CSTAT/RD 3 STD/CSTAT/RD 4 STD/CSTAT/RD 5 STD/CSTAT/RD 8 STD/CSTAT/RD 6 STD/CSTAT/RD 7
	Lunch Break			
	Confidential Session(OCED 회원국 only)			
	15:00–16:00	11	▪ 신규 회원국 가입관련 후속조치 – 이스라엘 및 칠레	STD/CSTAT/ACS 1 STD/CSTAT/ACS 2
	16:00–18:00	12	▪ 러시아 가입 검토 (CONFIDENTIAL) – 가입 보고서 초안	STD/CSTAT/ACS 3

3. 주요활동

(1) 회의별 주요내용

□ OECD 통계위원회 회의

❍ [CSTAT 예산 및 사업프로그램(PWB)] CSTAT의 41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회원국의 우선순위 의견수렴 결과와 사무국의 기존 사업 성과물간 불일치하는 4가지 주요분야인 미시분석을 위한 사무국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성기업활동 지표, 국민계정의 가구특성별 소득분배 및 비관측경제의 향후 업수수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 업무 중요도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된 사업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일몰시키는 방법, 활용가능한 다른 자료원 모색, 화상회의나 전자매체를 통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지속 추진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Big Data] 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 이동전화, SNS 등의 확산으로 전통적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대량자료(Big Data)가 물가, 실업, 재해, 인구 특성 등 수치 생산에 활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통계청의 대응과 역할을 논의

- 여러 회원국들이 Big Data의 새로운 자료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로부터 도출된 자료의 공신력,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한 법 개정, 통계적 방법론의 적용 등의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국가통계청의 역할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 동의

- 우리 대표단장(우기종 통계청장)은 Big Data가 시의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자료 품질이나 산출된 수치를 모집단에 추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어 정확성 검증이 어려움을 지적하는 한편,

- 민간의 강력한 자료생산자의 대두와 이로 인한 국가통계청의 해결과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

❍ **[도시의 재정의]**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간 비교에 필요한 '도시(Urban)'의 합의된 정의 및 도시 현상 파악을 위한 통계가 부족하여 CSTAT은 GIS 기반의 기능적 경제 단위로서의 도시, 즉 도시권(Urban area)을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토의

- 금번에 사무국이 제시한 방법론은 28개 회원국의 1,148개 도시권*(기능적 도시지역)을 식별하여 국제비교 및 국가 내 도시체계,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기능적 실태를** 파악토록 한 것임

* 도시권을 Urban core(중심부)와 Hinterland(주변부, 통근율 15% 적용)로 구성

**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도시권의 성장 잠재력, 경쟁력, 지역간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 회원국들은 각 국이 도시에 대한 동일한 개념 사용시, 보다 많은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국가도시화 정책수립 및 지역사회 개발 추진 등에 동 방법론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 통근율을 기준으로 한 주변부 설정에 관해 한국(5%), 일본(10%), 미국(25%), 캐나다(50%) 등은 이미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도시권을 설정하여 운용중인 바, 개별 국가의 효과적 정책적용의 당면성과 국제비교를 위한 공통기준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별 기존 방식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식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 **[국민계정과 금융통계]** 회원국들은 국민계정 및 금융통계 작업반의 지원하에 진행 중인 2008 SNA 이행과 시의성있는 자료 부족(Data Gap)의 축소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기구간 자료공유를 통한 일관성 제고 및 자료제공의 부담 경감을 요청

- 부문별 계정의 분기자료 보완, 가계 불균등, 부동산 가격지수 등 여러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및 국민계정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Data Structure Definition 개발('13)을 지지

❍ **[2013년 How's Life? 보고서]** 위원회는 기존 GDP 중심 발전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OECD 'Better Life Initiative'하에서 추진 중인 How's Life? 2013년 개정판 내용(기존지표 업데이트와 신규지표 추가)과 특별 Chapter 구성(고용의 질, 성별 격차, 지속가능성)에 관해 논의

- 특히, CSTAT은 초판인 How's Life?(2011년)이 지주로 현재 웰빙상태를 평가하면서 미래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가구의 웰빙과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관성을 다루는 점을 강조함

- 우리 대표는 웰빙의 개념틀과 구성지표 세트에 대한 국가간 합의 정도나 자료부족 보완을 위해 비공식통계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차기 개정판에는 종합점수화된 국가별 순위는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간 비교보다는 국별 웰빙 상황의 변화(개선/악화)를 다루는 추세분석이 필요함을 제언

❍ **[제4차 OECD 세계포럼]** CSTAT은 '12년 10. 16. ~ 19. 동안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OECD 세계포럼의 아젠다 초안*과 회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에 포함할 내용에 관해 토의

* (1)물질적 조건 (2) 삶의 질 (3) 성인지 및 생애주기, 사회적 그룹 등

- 우리 대표는 스티글리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웰빙측정의 궁극적 목표가 'Beyond GDP'임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적으로 GDP가 국가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웰빙측정 결과가 어떻게 GDP를 대체/보완할 것인지, 이 두 가지 Measure간의 관계 설정, 정책 반영 방법 등 정책적 활용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 여러 회원국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웰빙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UN Post-2015 아젠다와의 관계 등을 다룰 것을 제안

- 동 회의에는 인도 수상과 통계부장관, 일본 각료, 부탄 수상,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 제프리 삭스 콜럼비아대학교 교수, 저명 심리학자 디튼교수 등 고위 정책결정자와 유명 학자들의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 아국에서는 **우기종 통계청장이 포럼 개회세션에서 "부산에서 델리까지" 주제 연설자로 초청됨**

○ **[러시아의 회원국가입을 위한 통계검토]** 위원회는 러시아의 통계관련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자료의 질과 비교가능성, 회원국 통계DB와의 통합 역량 등의 차원에서 러시아가 회원국 수준에 부응하는지, 사무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논의함

- 위원회는 금번 통계검토의 목적은 러시아 국가통계시스템의 강화인 점을 분명히 하면서 러시아 통계청이 지난 1년간에 이루어낸 괄목할만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 통계청의 독립성 부족, 재무부의 재정통계 미제공, 보건통계 미제공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신임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과 관련해 '12.5월에 선포한 Presidential Decree의 내용과 실제적 운용에 관한 정보 파악 없이 CSTAT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에 동의함

· 향후 러시아 가입 관련 진행일정은 CSTAT 의장이 이런 상황을 문서화하여 회원국 의견 수렴 후, 사무국의 러시아통계 검토실무반이 러시아 통계청과 소통하기로 함

○ **[차기 회의]** 통계위원회 차기 회의는 '13년 6월 10일 주에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함

□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회의('12. 6. 5)

○ 러시아 회원국 가입을 위한 통계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이 중 특히 러시아 통계청의 독립성과 상위부서(경제개발부)의 조사방법 승인 관련 우려에 대해, 의장단국가들은 가입후보국에 너무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일단 회원국 진입 후에 개선해 나가는 것도 러시아의 통계발전에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 Big Data의 통계적 활용에 대해, 현단계에서 통계적 목적의 사용은 한계가 있으나, 대안적인 자료원으로서의 활용과 통계정보로 이용된 사례 발굴 등 획기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함

○ 사무국이 제시한 도시권 재정의 방법론에 대해, 비유럽국가들은 유럽국가 위주로 기 구축된 도시 정의와 다른 유형의 도시발전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법론과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사무국이 제안한 기준으로의 통합시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을 피력

- 도시 재정의 아젠더는 각국의 통계청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내 관련부처와의 의견교환은 물론 OECD의 관련 위원회와 전문가들과의 공동 작업이 필요함이 언급됨

(2) 국제통계 협력활동

○ [한-Eurostat 양자협력] 한-Eurostat 통계협력 MOU 체결('10.6월) 후 첫 공동사업인 "한-EU 통계비교보고서" 발간('12.3월)을 완료하고 향후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

- 양측은 제4차 OECD 세계포럼('12.10.16-19, 뉴델리)에서 녹색성장통계*에 관해 공동작업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일정을 논의

* 세션명: 환경 지속가능성(4a)

- 양측 인력교류를 위한 한국통계청 직원의 Eurostat 파견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Eurostat측이 European Commission내 행정절차를 거친 후 '12.9월에 우리측에 인력파견 요청서를 보내주기로 함

○ 유엔 ECE(유럽경제이사회) 통계국장으로부터 ECE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 한국의 참가를 요청받음**

○ 또한 OECD 통계국 통계정보시스템과 과장(트레보 플레처)의 업무발표 중에 한국 통계청이 **OECD 통계국과 공동개최하는 "통계의 지식전환 혁신세미나"('12.9.25-27, 서울)에 많은 회원국들이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함

(3) 관찰 및 평가

○ OECD 통계위원회는 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과 국제기구 통계부서장들이 모여 세계 통계시스템이 나아갈 주요방향, 의제별 실천방향 수립 및 이행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임

- 아국은 최근 대두되는 통계 동향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아젠다에 대해 적극 발언하여 국제적 논의를 진일보시키는데 기여함

- 또한 최신 정보 교류 및 고위급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아국의 위상과 리더십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음

4. 회의 관련 사이트

○ OECD 내부망(OLIS) : www.oecd.int

Ⅱ 제60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1. 개 요

(1) 회의명

❍ 제60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60th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2) 회의장소 및 회의기간

❍ 회의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re

❍ 회의기간 : '12. 6. 6(수) ~ 6. 8(금)

(3) 참가목적

❍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선진 유럽 국가에서 논의되는 통계 관련 최신 이슈와 정보를 파악, 통계청 발전 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4) 참가규모 : 55개국* 164명

* 한국,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2. 회의의제 및 프로그램

시간	안건	주 제
Wednesday, June 6		
09:30-09:45	1	개회사 및 아젠다 채택
09:45-10:00	2	UN통계위원회에서 CES에 제기한 문제들-UNRC활동 검토
09:50-17:30	FIRST SEMINAR SESSION : Challenges for futur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based on lessons learned from the last census round	
	3	**세미나: 향후 인구주택조사 도전 과제**
09:50-10:20		소개 및 기조연설
10:20-12:30		**Session 1: 2010/2011 인구센서스-혁신과 교훈** 세션조직: 이탈리아 초청논문: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 2010년 센서스 - 혁신 및 교훈 - 센서스의 미래 및 국가통계시스템의 역할
12:30-14:00	Lunch Break	
14:00-17:30		Session 1: 계속 (논의)
Thursday, June 7		
09:30-17:30	SECOND SEMINAR SESSION : Implementing the UN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09:30-16:50	4	**Session 2: 공식통계의 UN 권고사항 적용 및 이행** 세션조직: 호주, 영국, 미국 및 UNECE 초청논문: 러시아, 영국, EUROSTAT - 공식통계 기본원리 적용 - 국가통계시스템 조정 - 후속조치를 위한 권고안
16:50-17:00	5	2010년 유럽통계인 컨퍼런스 후속조치 - 글로벌 위기 충격이 통계시스템에 미친 영향
17:00-17:15	6	'12-'13 유럽 통계프로그램을 위한 UN 경제위원회 보고 - UN경제위원회 작업에 대한 전략 및 보고 - UN경제위원회 검토사항 - 유럽통계국 및 전문가 그룹 컨퍼런스 보고
17:15-17:30	7	2013년 개최될 세미나를 위한 의제 선택

시간	안건	주 제
Thursday, June 8		
09:30-12:30	FORMAL BUSINESS	
09:30-10:15	9	UNECE 지역 내 국제통계사업 조정
10:15-11:40	10	CES 리포트, 가이드라인, 권고안 - 지속가능한 개발 측정 - 통계목적을 위한 범죄 국제분류 - 국제이주추정치 분석
11:40-12:20	11	기 타
12:20-12:30		폐 회

3. 주요 논의 내용

□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의 도전과제**] 비용, 데이터 품질, 응답부담, 프라이버시 등은 향후 많은 국가에서 센서스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로, 각 국의 센서스 2010 라운드를 리뷰하고 2020 라운드를 위한 CES Recommendation 개정을 준비

- 센서스방법론 관련 서브 워킹그룹은 센서스 실시방법이 유사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만 문제 해결 및 경험 공유가 용이할 것이며,

- 2020 라운드의 자료품질과 관련하여 추가로 결성되는 TF팀은 영국이 chair를 맡기로 수락함

.CES는 각 국 통계청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TF팀 참여를 독려함

□ [**공식통계 Fundamental Principles*의 이행**] 약 20년 전 UN에 의해 작성된 공식통계 Fundamental Principles를 리뷰하고, 이에 대한 성공적 이행 방법 및 국가 통계청의 역할을 논의함

* (1) 국가 공식통계는 공공정보로서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함
(2) 전문적 지식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우러져야 함
(3) 과학적 기준의 적용을 통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함
(4) 통계기관은 잘못된 해석과 통계 오용에 대해 지적할 권한이 있음
(5) 모든 형태의 자료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야 함
(6) 개인자료는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고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7) 통계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법 등은 대중을 상대로 공표되어야 함
(8) 국가통계기관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함
(9) 국제기준은 일치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
(10) 양자.다자 협력은 모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

- 국가통계청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과 도구(tools)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신규 도전들에 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향후 빅데이타 사용이 활성화되면 동 자료에도 Fundamental Principles을 적용하자고 제안함

- Principles 6과 관련하여 통계청이 자료의 비밀보호(confidentiality)를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demonstration 등이 필요하며, 기본적 입장은 일반 이용자에게 자료를 open해야 함을 피력함

- 또한 세계화, IT의 발달, 프라이버시의 증가가 조사현장의 주요 변화인데, 세계화는 국제기준이 필요함을, IT의 발달은 조사 및 자료 보급 방법 변화의 필요성을, 프라이버시 강화는 서베이가 어려워짐을 의미함. 따라서 이를 반영한 Fundamental Principles의 변경이 필요함을 제안함

□ [2010 CES 세미나 후속조치] '통계시스템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관련 2010 CES 세미나'의 후속조치로 16개 국가와 6개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등을 모은 summary paper 소개

※ 배당시간 10분으로,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
: www.unece.org/stats/documents/2010.06.ces/contributions.html

□ [‘12-’13 유럽 통계프로그램을 위한 UN 경제위원회 보고] '11~'12년 UNECE 통계국에 의해 수행된 통계프로그램을 격려하고, ‘12년 컨퍼런스 개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함

- 또한 ‘12-’13년 통계프로그램 및 Biennial Evaluation 계획, ‘14-’15년 통계프로그램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도 승인함

- UNECE Executive Committr(EXCOM)은 '13년 UNECE 봄 세션에서 논의 예정인 향후 UNECE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 예정이며, 각 UNECE 프로그램의 Friends of the Chair Group을 셋업하고, 통계 리뷰를 위해 동 그룹에 러시아, 터키, 유로스탯을 참여시킴

□ [2013 Plenary Sesson of the Conference 세미나 주제] ‘12년 5월 CES 회원국의 의견수렴 결과, ’연구 목적의 마이크로데이타 제공 관련 도전과제‘와 ’SEEA 이행 및 Rio+20 후속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 관련 도전과제‘로 선정

- CES 의장단은 ‘12. 11. 5~6 동안 열리는 미팅에서 2013 CES 세미나 조직에 대해 토의 예정

□ [HLG-BAS* 전략개발 소개] HLG-BAS 의장(네덜란드 통계청장)은 동 그룹의 비전**과 ‘12년 GSIM Sprint 개최(‘슬로베니아, 한국) 등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신규멤버로 멕시코, 한국이 가입됨을 축하

* High Level Group in Business Architecture in Statistics
** Innovate the products and service / Industrialize the process

- 아울러 '12년 GSIM 1.0의 완료 계획과 HLG-BAS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빅데이터 관련 방법론 연구 등 향후 수행 예정 사업을 소개하고, CES 멤버의 아이디어 및 지원 등을 부탁

- 회원국은 각 국 통계기관과 HLG-BAS 사업의 효과적 공유를 위한 Communication 전략을 강조하면서 non-CES 국가와의 전략 소통 방안을 질문*
(*답변 : 한국과 멕시코를 새 멤버로 영입하면서 대륙별 균형 유지)

- 특히 동 그룹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 통계청 및 IT 전문가들과 개발전략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의장은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을 개최하여 모든 시스템을 오픈할 것으로 답변함

- 또한 Big data 등 유용한 자료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HLG-BAS의 보편적 표준화 사업은 모든 국가에서 이행되어야하므로, 강력한 리더쉽을 전제로 한 명확한 조정역할이 필요하고, 각 국 initiative와의 조화를 위해 HLG-BAS 사업의 timetable 등을 요청함

- 독일, 스웨덴, 핀란드는 상기 개발전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이 유일한 길인 동시에 매우 복잡한 작업이므로 회원국 모두가 상호 지원해야 함을 강조

□ [**고령화 관련 통계**] 현재 많은 통계가 연령별로 결과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는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인구전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EU내 관련 모니터링 지표가 부족함을 시사

- 통계인, 정책입안자 등으로 이루어진 TF 구성, 고령화 지표의 통합 및 대시보드 작성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안하며, 연금, 은퇴 등과 관련한 주관적 지표의 측정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교육통계]** '11년 CES 의장단은 교육통계 관련 심층리뷰를 실시하고, 교육통계 wiki 설립, 행정자료 활용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 개발, e-learning 측정을 위한 Task Force팀 구성 등을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일부 국가와 OECD, 유로스탯이 관심을 보이긴 하였으나, 현재 각 사업의 리더로 자발적 의사표시를 한 국가는 없음

□ [**가구조사 방법**] 가구 대상 조사방법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타 자료원(data source)과의 통합, 학계와의 친밀한 협조체계 구축, 웹서베이 등의 선진기법 적용, 전통적 조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임

- 의장단은 '12. 10월 개최되는 The Meeting on Data collection(제네바, 10.31.~11.2.)의 결과를 감안,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키로 결정함

□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을 위한 TF팀은 현재 관련 프레임을 개발 중이며, 동 내용은 CES plenary 세션 이후 보고서로 발간 예정임

- 프레임은 크게 3개*의 개념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즉 (1) Human well-being 'here and now' (2) Human well-being 'later' (3) Human well-being 'elsewhere'임

* (1) Human well-being 'here and now' : 주관적 웰빙, 소비와 소득, 보건, 주택, 대기의 질, 교육, 레져, 노동, 안전, 신뢰와 사회기관

(2) Human well-being 'later' : ①경제.금융자본(물적자본, 지식자본, 금융자본) ② 자연자본(energy resource, non-energy resource, 토지와 생태계, 물, 대기의 질, 기후) ③ 인적자본(노동, 교육, 보건 ④ 사회자본(신뢰와 사회기관)

(3) Human well-being 'elsewhere' : 소비와 소득, energy resource, non-energy resource, 토지와 생태계, 물과 기후 등

4. 회의 관련 사이트

○ http://live.unece.org/stats/documents/2012.06.ces.html

제2차 한-네덜란드 양자협력회의 참가보고

Ⅰ 개 요

1. 회의장소 및 기간

○ 회의장소 : 네덜란드 통계청(헤이그, White Room)

○ 회의기간 : ‘12.5.31.(목) ~ 6.1.(금)

2. 통계청 대표단

○ 대표단장 : 청장님

○ 단 원 : 최성욱 경제통계기획과장,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서경숙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3. 개최목적

○ 한-EU FTA 체결 및 양측간 경제사회적 교류 증대에 발맞추어, 우리 통계청은 ‘11.5월 대전에서 통계선진국인 네덜란드 통계청과 통계협력 MOU를 체결하고 제1차 청장급 양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그 후속으로 금번에 제2차 청장급 양자회의를 헤이그에서 열고 최근 통계작성 환경의 급속한 변화(전자조사 확대, Big Data의 대두 등)에 대응한 국가 통계청의 정책 변화와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심화시킴

4. 주요 논의사항

○ 한국 및 네덜란드 통계청의 최근 동향 소개

○ 경제통계 개선 계획 및 혁신사례 발표, BLAISE System 소개

○ 데이터 수집전략 및 한-네덜란드 공동협력사업 발굴 협의

Ⅱ 회의 프로그램

【국 문】

시 간	프 로 그 램
5월 31일(목) 【White Room】	
09:30	.환영인사
09:45 – 10:30	.네덜란드 통계 최근동향 – 발표자 : Gosse van der Veen 네덜란드청장
10:30 – 10:45	커피브레이크
10:45 – 11:30	.한국통계 최근동향 – 발표자 : 우기종 통계청장
11:30 – 12:30	.자료처리 표준화 – 발표자 : Kees Zeelenberg or Barteld Braaksma
12:30 – 14:30	오찬(Deux Ville)
14:30 – 16:30	.데이터 수집전략 및 토론 – 발표자 : 서경숙 사무관 / Hank Hermans of Jeroen van Velzen
16:30 – 17:30	.국제협력활동 – 발표자 :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6월 1일(금) 【White Room】	
09:30 – 10:30	.경제통계 New trends 및 토론 – 발표자 : 최성욱 경제통계기획과장 / Hanneke Imbens
10:30 – 11:00	.Blaise 시스템 설명 – 발표자 : Peter Sinkevich
11:00 – 11:15	.커피브레이크
11:15 – 12:30	.Virtual Census – 발표자 : Eric Schulte Nordholt
12:30 – 14:30	.오찬
14:30 –	.문화체험

【영 문】

Time	Program
Thursday 31 May 【White Room】	
09:30	.Welcome
09:45 – 10:30	.General introduction on the Dutch Statistical System (new developments since last visit) - Presenter : Mr. Gosse van der Veen
10:30 – 10:45	.Coffee break
10:45 – 11:30	.General introduction on the Korean Statistical System (new developments since last visit) - Presenter : Mr. Ki-Jong Woo
11:30 – 12:30	.Standardisation of Process - Presenter : Mr. Kees Zeelenberg or Barteld Braaksma
12:30 – 14:30	.Lunch in Deux Ville – The Hague
14:30 – 16:30	.Data collection strategies and discussion - Presenter : Kyoung-sook Seo / Hank Hermans of Jeroen van Velzen
16:30 – 17:30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 Presenter : In-sook Jeong
Friday 1 June 【White Room】	
09:30 – 10:30	.New trends in economic statistics and discussion - Presenter : Mr. Sung-Wook CHOI / Ms. Hanneke Imbens
10:30 – 11:00	.Demonstration of Blaise - Presenter : Mr. Peter Sinkevich
11:00 – 11:15	.Coffee break
11:15 – 12:30	.The Virtual Census - Presenter : Mr. Eric Schulte Nordholt
12:30 – 14:30	.Lunch
14:30 –	.Social Programme in Amsterdam

Ⅲ 주요 논의 내용

❍ **[양국 통계의 최근동향]** 우기종 통계청장은 한국의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 KOSIS, 나라통계시스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등 현재 통계청이 구축하고 있는 집중형 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의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

- 특히, 통계생산과 제공의 현대화를 위한 최적모델 개발을 목표로 구성된 리더그룹인 HLG-BAS(High-Level Group for Strategic Development in Business Architecture in Statistics)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함

- 네덜란드 통계청장(Gosse Van Der Veen)은 '12년 통계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량 확대와 예산.통계인력 감축 요구간의 균형을 위해 통계생산프로그램 조정과 기존 업무의 우선순위 진단에 기반해 조직개편을 실시, 자료수집 및 연구개발 기능을 집중화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음을 소개

- 또한 국제사회에서 정보시스템 분야의 개척국가이자 IT혁신의 산실로 알려진 네덜란드 통계청(CBS)은 BLASE시스템 등 자료수집 및 제공 표준화 시스템을 시현하고, 우리측은 CBS와 국제기구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교환과 관련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공유를 요청함

❍ **[CBS의 Virtual Census]** CBS는 Population Register(PR)을 기본으로 사회보장, 연금.보험, 주택등록 등의 행정자료 및 고용, Housing Survey 등 다양한 자료원을 연결하고, 이에 가중치 부여 등 통계방법론을 적용하여 100%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 '15년 전통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측에 선진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자료수집 전략]** 한국통계청은 이례적으로 은행시스템을 조사내용과 접목하여 응답부담 경감 및 자료의 품질 향상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가계조사를 비롯하여 2010 인구주택총조사 등 인터넷 옵션이 적용된 전자조사 사례와 향후 도전과제를 소개하는 한편,

- CBS는 부처 및 공공.민간기관의 보유 자료 공유를 통한 통계자료의 재사용, 웹기반 조사 확대 등 자료수집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을 시현함으로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 통계조사환경 극복에 필요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

❍ **[경제통계의 최근동향]** 한국 통계청은 조사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경제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의 이용,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조사의 확대, 기업생멸통계 등 신규통계의 개발을 CBS에 소개

- CBS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람(기업자) 중심의 행정자료를 기업단위로 재편하는 노력을 통하여 통계작성시, 중소기업자료는 대부분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설명

- 또한 한국에서 현재 개발 중인 기업생멸통계도 국세자료를 이용하여 이미 작성 하고 있어 통계방법론에 관한 정보제공 등 협조 가능함을 피력